



2017. 7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nd week

목차

- | | |
|----|--|
| 본문 | 1. ISO/IEC JTC1, '스마트시티 개념 모델' 표준 제정 2. 유럽위원회,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EIF) 채택 발표 |
| 기타 | - oneM2M, IoT 상호운용성 표준화 구현 테스트 개최 - 3GPP, IETF와 5G 협력에 대한 논의 |

* 게시물 보기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 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1. ISO/IEC JTC1, '스마트시티 개념 모델' 표준 제정

(Smart city concept model published)

보도날짜 2017. 6. 21.

출 처 ISO

사 이 트 <https://www.iso.org/news/ref2197.html>

- 2017년 6월 21일, ISO/IEC JTC1 스마트시티 개념 모델 표준(ISO/IEC 30182) 제정
 - UN은 이미 10년 전부터 세계 인구수가 최고치에 도달하였고, 2007년 세계 도시의 거주 인구수가 50%를 넘기 시작하여 현재 그 비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 발표함
 - 이에, 현재보다 도시가 더 똑똑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똑똑한 도시(smart city)'의 개념 정립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ISO/IEC JTC1 표준(ISO/IEC 30182)은 '스마트 시티'에 대한 필수적 개념을 정립하는 국제표준을 개발함
 - 이번 ISO/IEC 30182 표준인 '스마트시티의 개념 모델-데이터 상호운용성을 위한 모델 수립 지침'은 스마트 시티 개념 모델(SCCM, smart city concept) 지침을 제공함
 - 도시생활의 무형적 요소로는 장소, 지역사회, 서비스 및 자원 등으로, 이번 표준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 이외 조직의 자원과 각 장소에서의 사건 관계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더불어, 현재 어떤 도시가 일반적 도시로 정의되는지에 대한 도시적 개념이 별도로 없고, 어디서 적용되는 지 등의 스마트 도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음
 - 이에, 도시의 개념적 모델을 제공하여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 정보 및 솔루션의 공유를 촉진하며, 순환 개선과 오염 감소 및 빠른 정보와 안전하며 인류가 행복해지는 커뮤니티 간의 물리적, 가상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함
- 이번 표준의 목표 중 하나는 도시 서비스의 촉진자로서 현재 데이터 사용량에서 증가시키는 것임
 - 이는 시스템과 서비스의 미래 방향에 대한 혁신 자원으로 데이터 재사용에 대한 탐색의 의사결정자를 격려하는 것임

2. 유럽위원회,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EIF) 채택 발표

(New European Interoperability Framework presented at Digital Assembly in Valletta, Malta)

보도날짜 2017. 6. 23.

출 처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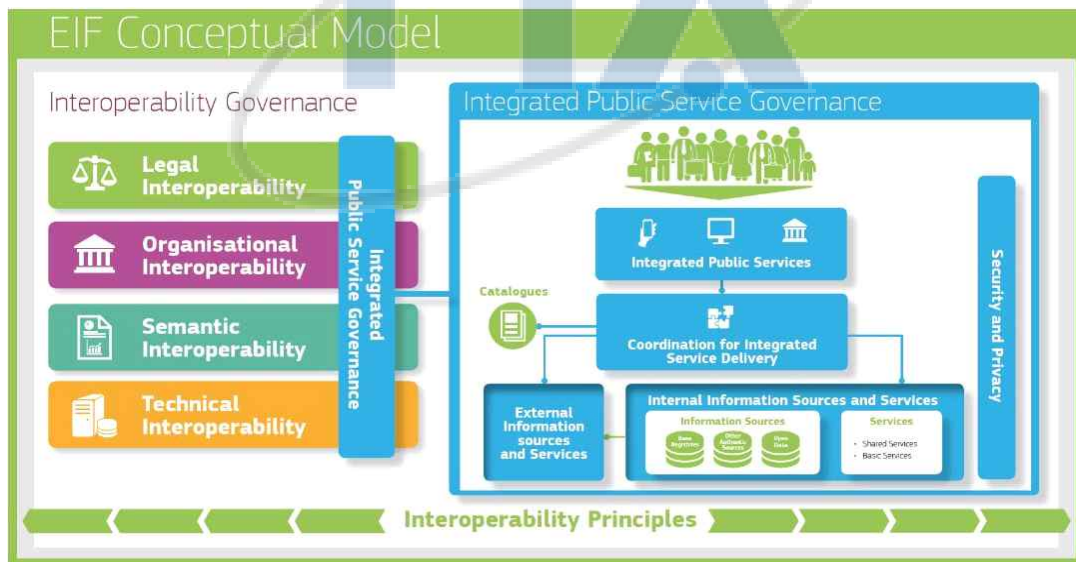
<https://ec.europa.eu/isa2/news/new-european-interoperability-framework-presented>

사 이 트 [-digital-assembly-valletta-malta_en](https://ec.europa.eu/isa2/news/new-european-interoperability-framework-presented-digital-assembly-valletta-malta_en)

* 참고(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CzHHJ0ZTM&t>

- 2017년 6월 23일, 유럽집행위원회(EC) 정보학 총국 사무총장인 Gertrud Ingestad는 몰타 발레타에서 개최된 디지털 총회(6.14)에서 유럽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EIF, European Interoperability Framework) 채택을 발표
 - 유럽집행위원회는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 조치의 일환으로 유럽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EIF)를 결의문으로 채택하였고, 디지털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과 단대단 구현 및 설계에 대한 유럽 전반의 공공행정에 대한 통일된 접근법을 다루고 있음

< 유럽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EIF) 개념적 모델 >



- EU 회원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각 국가의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및 전략(NIFs, National Interoperability Frameworks and strategies)이 이번 유럽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EIF)와 연계되도록 하여, 유럽 전역에 상호운용성 적용으로 유럽 회원국 간의 디지털 분열(fragmentation) 문제 해결을 통해 디지털 단일시장을 실현할 것임
 - 유럽집행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유럽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에는 상호운용성의 원리와 모델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더 중점을 뒀다고 밝힘

- 또한, 유럽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유럽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EIF)는 상호운용이 가능한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47개의 특별 권고안(specific recommendation)을 포함하였음
-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 회원국이 유럽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의 비의무적 권고사항 이행에 대해 의논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유럽 회원국의 IT 구조설계를 담당하는 CIO(Chief Information Officers)의 정기적 만남을 추진할 예정임



기타 소식

oneM2M, IoT 상호운용성 표준화 구현 테스트 개최

- ▶ 출처 : <http://www.onem2m.org/news-events/news/147-onem2m-s-interop-4-sees-iot-standardisation-gain-momentum> (2017. 6. 19.)
- 2017년 6월 19일, oneM2M은 IoT 상호운용성에 대한 표준화 구현 테스트에 대한 이벤트에 13개 기업이 참여하여 단대단 기능을 확인하고 상호운용성을 검증함

3GPP, IETF와 5G 협력에 대한 논의

- ▶ 출처 : http://www.3gpp.org/news-events/3gpp-news/1869-ietf_cooper (2017. 6. 7.)
- 2017년 6월 7일, 3GPP TSG 총회에서 '수요일 발표자(speaker) 클럽' 개최를 통해 3GPP와 IETF가 5G에 관한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